# 전남지방의 'ㅁ'형 안채 연구*

김 지 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전남지방, 'ㅁ'형 한옥, 안채, 조선후기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남지방에는 외형적으로 한식 골기와가 올려진 정면 5간 이상의 규모가 큰 '一'형 한옥[1]이 'ㄱ'형이나 'ㅁ'형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즉 일반인들은 '一'형을 이 지역의 보편적인 한옥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一'형 한옥의 건립 시기는 거의 구한말이라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무렵으로 불과 50-60년 동안에 집중되어 있다.

그간 전남지방의 '一'형 한옥에 대하여는 여러 방면에서 소개가 되었으나 'ㅁ'형과 'ㄱ'형은 아직까지 학문적 연구결과가 없다. 분명히 'ㅁ'형은 '一'형에 비해 건축적으로 독특한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류를 이루는 '一'형 한옥 속에서 'ㅁ'형이 갖는 여러 가지 건축적 의미, 즉 'ㅁ'형 안채의 발생과정과 공간구성상의 특성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앞으로 'ㄱ'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전남지방의 상류주거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전라남도 내에서 현존하는 'ㅁ'형 안채와 없어졌더라도 기록이 있는 한옥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한옥의 건립시기는 17C부터 20C 초 무렵까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 내용이 다루어졌다. 하나는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전남지역에 'ㅁ'형 안채가 나타났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ㅁ'형 안채의 평면구성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一'형 안채와의 상관성도 일부 언급된다.

안채와 관련된 배치연구도 한옥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다. 그러나 이 분야는 선행의 연구로 이미 잘 알려져 있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바이오하우징 연구사업단)

1) 주거의 대명사격으로, 즉 넓은 의미로 '한옥'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좁은 의미로 '안채'를 의미한다.

[표 1] 연구대상 'ㄇ'형 안채 가옥 목록

| NO. | 가옥명 | 소재지 | 건립연도 | 건물구성 | 문화재지정 | 기타 |
|---|---|---|---|---|---|---|
| 1 | 김선기 |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341 | 1600년대 초 | 안채, 사랑채, 사당, 행랑채 | 문화재자료 제 180호 | |
| 2 | 윤조루 |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 1776년 | 안채, 사랑채, 곡간채, 행랑채, 가묘 | 중요민속자료 제 8호 | |
| 3 | 양동호 |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69 | 1780년대 | 안채, 사랑채 | 중요민속자료 제 152호 | |
| 4 | 이경휴 |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367-1 | 1755년 | 안채, 문간채, 창고 | 전남민속자료 제 40호 | 이건 |
| 5 | 윤두서 | 해남군 현산면 백포리 372 | 1730년 | 안채, 아래채, 곡간채, 사당 | 중요민속자료 제 232호 | |
| 6 | 녹우당 |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82 | 1600년대 | 안채, 사랑채, 행랑채, 가묘, 별묘, 재각, 헛간 | 사적 제 167호 | |
| 7 | 이군백 |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2-5 | 1800년대 | 안채 | | |
| 8 | 위성렬 |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92 | 18C 말 - 19C 초 | 사당, 안채, 사랑채, 헛간채 | | 현존 않음 |
| 9 | 여산송씨 종가 | 무안군 무안읍 고절2리 | 1600년대 | 안채, 사랑채, 문간채 | | 현존 않음 |
| 10 | 이건풍 |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659-1 | 1600년대 | 안채, 사당, 헛간채 | 문화재자료 제 251호 | |
| 11 | 정무경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89 | 1800년대 초 | 안채, 사랑채, 헛간채 | | |
| 12 | 정학남 | 강진군 병영면 박동리 | 1890년대 | 안채, 사랑채 | | |
| 13 | 한정석 |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 1917년 | 안채, 사랑채 | | 현존 않음 |
| 14 | 이금재 |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 | 1900년대 초 | 안채, 곡간채, 문간채 | 중요민속자료 제 157호 | 'ㄩ'형 |
| 15 | 이용우 |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 580 | 1908년 | 안채, 사랑채, 문간채, 아래채, 곡간채 | 중요민속자료 제 163호 | 'ㄩ'형 |
| 16 | 이동훈 | 보성군 복내면 시천리 1구 | 1910년 | 안채, 사랑채, 헛간 | | '⊐'형 |
| 17 | 현종식 |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117-3 | 1902년 | 안채, 사랑채 | 전남민속자료 제 14호 | 'H'형 |

어[2]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편 구조와 의장적 특성도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ㄇ'형과 정반대의 'ㄩ'형 안채도 보성지역에서 2채가 보여 주목된다. 즉 양측 돌출부가 가옥 전면의 앞마당 쪽이 아닌 후면으로 나 있다. 이러한 가옥은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예로 이에 대한 고찰은 선행 연구[3]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비교차원으로 단순 소개 정도로 그쳤다.

'ㄇ'형 안채에 대한 조사는 1986년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2006년도

2) 최일, 조선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 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박명현·천득염, 조선후기 중상류주거 배치 형태에 관한 연구-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3권 2호, 2003

3) 전봉희, 전남 보성지역의 ㄩ자형 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8호, 1998년

현장조사로 마무리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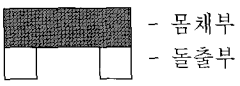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 가옥은 표1에 제시한 17가옥이다. 여기에는 'ㅁ'형 가옥과 함께 'H'형 가옥도 1채가 포함되어 있다.

### 1-3. 'ㅁ'형 안채의 정의

한옥의 형태를 그동안 학계에서는 '一'형, 'ㄷ'형, 'ㅁ'형 등으로 분류했다. 즉 평면적으로 외곽의 형상에 따라 한글의 자음과 모음 이름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 'ㅁ'형이란 'ㄷ'형을 일컫는다. 굳이 'ㅁ'형이라고 한 것은 쉽게 형태를 인식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전남 보성지방에서만 보이는 'ㅁ'형도 있어 이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ㅁ'형을 읽을 때는 '디귿자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ㅁ'형 안채는 그림1에서와 같이 몸채부와 돌출부로 이름을 붙였고 좌·우 돌출부가 모두 1간 이상만 앞쪽으로 돌출되면 'ㅁ'형 안채로 정의했다. 좌우 돌출부의 길이는 거의 같으나 그렇지 않은 가옥도 있다.




<그림 1>

다시 정리하면 'ㅁ'형 안채는 돌출부가 가옥 앞쪽의 마당 쪽으로 나있는 것이고 'ㅁ'형은 가옥 후면, 즉 뒷마당 쪽으로 돌출부가 나있는 것이다.

## 2. 'ㅁ'형 안채의 분포와 건축연혁

### 2-1. 전남지방의 지리적 특성과 'ㅁ'형 안채의 분포

전남지방의 지리적 특성은 대체적으로 동북부는 산지가 많고 서남부는 평지와 구릉성 산지로 되어 있다.

서남부 중심에는 호남의 대표적 큰 강인 영산강이 있다. 한편 전국 도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도서도 서·남해상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영산강 주변으로는 일찍부터 부족사회가 발달했었고 특히 조선조에 있어서는 나주가 영산강의 핵심도시로 자리하였다. 영광, 함평, 무안, 해남, 강진 지역 등은 영산강의 내륙문화권에 속해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바다와도 접해있어 해양문화권에도 속해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임란이후 도서지방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섬 문화를 일구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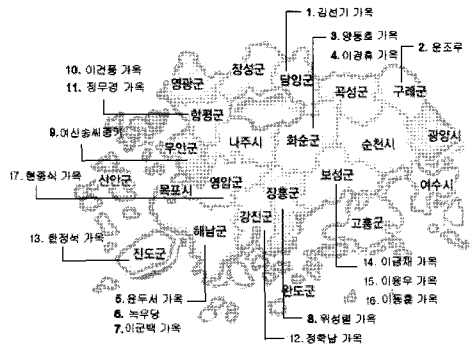
전남의 동·남부지역인 순천권쪽은 동쪽으로는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경상남도와 구분되면 서쪽으로는 보성강이 있어 전남의 서부 내륙쪽과 구분된다. 북쪽으로는 고산지인 소백산맥(지리산)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흥반도, 여수반도 등 바다와 면하고 있다. 현 행정구역상으로 순천, 여수, 광양시와 서쪽으로 고흥, 보성군 지역까지 포함된다.

이 지역은 소백산맥의 지맥이 내려오면서 산지가 있는 곳도 있으나 순천만 등 해역 가까이로는 넓은 평야를 형성한 곳도 있다.

구례, 화순, 그리고 장흥의 일부지역(유치면 등)은 전남의 대표적 산간지역이다. 특히 구례군은 한반도의 남부를 북동-남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소백산맥의 본줄기 상에 위치하여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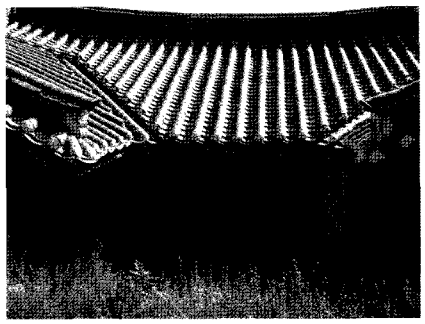
한편 담양, 장성 등은 전남의 북부지역으로서 비교적 산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가옥 17채는 위에서 언급한 지리적 상황에 관계없이 고루 분포한다. 평야지대나 산간, 그리고 도서지역(진도군) 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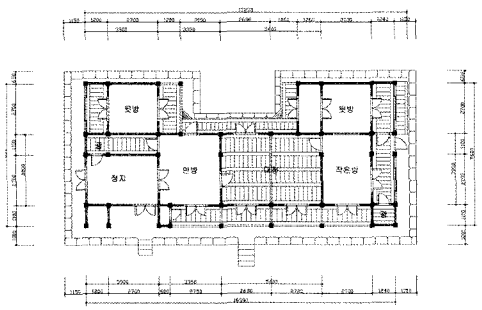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대상 가옥 분포도

남의 전 지역에서 'ㅁ'형 안채를 볼 수 있다. 즉 어느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는 현상은 없다. 다만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금재 가옥과 이용우 가옥 만큼은 보성지역에 'ㄷ'형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보인다.



<사진1> 이금재 가옥



<그림 3> 이금재가옥 안채 평면도
(2006년 필자실측)

## 2-2. 건축연혁

(1) 건립시기

'ㅁ'형 안채의 출현은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반까지 300여년에 걸쳐 넓게 나타난다. 이는 현존하는 전남지방의 'ㅡ'형 안채보다는 건립시기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표2에서 보듯이 1600년대가 4채, 1700년대가 5채, 1800년대가 3채 등 전반적으로 보성과 함평 일부 가옥만을 제외하고는 조선 중·후기 사이에 건립됐다. 'ㅡ'형 안채가 구한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상황과 비교하면 크게 비교가 된다.

즉 'ㅁ'형 안채의 건립은 'ㅡ'형 보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르다. 물론 'ㅡ'형 안채도 'ㅁ'형 안채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현존하는 'ㅡ'형 건물 말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 우리가 모르는 시기에 헐렸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최소한 'ㅁ'형이 늦은 시기에는 'ㅡ'형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ㅁ'형 안채의 시기적 특성을 엿 볼 수 있다.

[표 2] 'ㅁ'형과 'ㅡ'형 안채 건립시기

| 평면형 \ 시기 | | 17C | 18C | 19C | 20C | 계 |
|---|---|---|---|---|---|---|
| 'ㅁ'형 | 가옥수 | 4 | 5 | 3 | 5 | 17 |
| | % | 23.5 | 29.5 | 17.6 | 29.5 | 100 |
| 'ㅡ'형 | 가옥수 | 0 | 2 | 7 | 17 | 26 |
| | % | 0 | 7.6 | 26.9 | 65.3 | 100 |

· 'ㅡ'형 안채는 표3 한옥을 대상으로 하였음

연구대상 가옥 중 장흥 방촌의 '위성렬 가옥'[4]은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이 가는 가옥이

4) 위성렬 가옥은 長興魏氏 문중의 宗家다. 위씨들이 인근에서 방촌 내동으로 처음 이주한 인물은 魏德和(1551-1598)로 년도는 1588년으로 전해진다. 그가 바로 현 위성렬 가옥 자리를 종가터로 잡은 것이다. 1945년에 헐린 'ㅁ'형 안채는 당시 상량문(天啓二年)이 있어 1622년에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덕화의 장남인 廷喆(1583-1657)대에 지은 것이다. 정철은 말년에 재산을 분배한 문서를 남겼는데(1657년) 거기에는

[표 3] 'ㅡ'자형 안채를 보유한 전남지방 한옥 목록

| 가옥명 | 소재지 | 건립연대 | 규모 | 튀 위치 | 문화재 종별 | 면적(평) |
|---|---|---|---|---|---|---|
| 홍기창 | 나주 | 1918년 | 정6간, 측2간 | 전좌우 | 전남민속자료 9 | |
| 홍기응 | 나주 | 1892년 | 정6간, 측1간 | 전후우 | 중요민속자료 151 | 92.2㎡(27.9) |
| 홍기헌 | 나주 | 1909년 | 정6간, 측1간 | 전후우 | 중요민속자료 165 | 101.2㎡(30.6) |
| 최석기 | 나주 | 1925년 | 정7간, 측2간 | 전후우 | 문화재자료 158 | 134.1㎡(40.6) |
| 홍기종 | 나주 | 19C말 | 정4간, 측1간 | 전후좌우 | 전남민속자료 10 | 77.0㎡(23.3) |
| 박경중 | 나주 | 1934년 | 정7간, 측2간 | 전후좌우 | 문화재자료 153 | 159.3㎡(48.2) |
| 유종헌 | 담양 | 1919년 | 정5간, 측2간 | 전좌우 | 문화재자료 192 | 88.3㎡(26.7) |
| 고재선 | 담양 | 1921년 | 정6간, 측1간 | 전후좌 | 전남민속자료 5 | 110.0㎡(33.3) |
| 나상렬 | 무안 | 1912년 | 정6간, 측2간 | 전후좌우 | 중요민속자료 167 | 115.5㎡(35.0) |
| 박봉기 | 무안 | 1927년 | 정5간, 측3간 | 전좌우 | 전남민속자료 13 | 88.8㎡(26.9) |
| 이용욱 | 보성 | 1904년 | 정5간, 측1간 | 전후좌우 | 중요민속자료 159 | 72.8㎡(22.0) |
| 이식래 | 보성 | 1891년 | 정5간, 측1간 | 전후좌우 | 중요민속자료 160 | 72.9㎡(22.0) |
| 임진영 | 보성 | 1920년 | 정7간, 측2간 | 전 | 문화재자료 152 | |
| 이종선 | 보성 | 1908년 | 정7간, 측1간 | 전후좌우 | 전남민속자료 15 | 109.4㎡(33.1) |
| 문형식 | 보성 | 1915년 | 정5간,측1간 | 전후좌우 | 중요민속자료 156 | 87.6㎡(26.5) |
| 조순탁 | 순천 | 1934년 | 정6간, 측1간 | 전후좌 | 전남민속자료 30 | |
| 이규헌 | 영광 | 1895년 | 정6간,측2간 | 전 | 전남민속자료 22 | 74.7㎡(22.6) |
| 전씨 고택 | 영암 | 1849년 | 정5간, 측2간 | 전후우 | 전남민속자료 3 | |
| 문창집 | 영암 | 1795년 | 정5간, 측1간 | 전후 | 문화재자료 149 | 81.1㎡(24.5) |
| 위성룡 | 장흥 | 1946년 | 정6간, 측2간 | 전후우 | 전남민속자료 6 | 99.9㎡(30.1) |
| 위성탁 | 장흥 | 1918년 | 정6간, 측2간 | 전후좌 | 전남민속자료 7 | 95.6㎡(28.9) |
| 위계환 | 장흥 | 1937년 | 정5간, 측2간 | 전좌우 | 중요민속자료 161 | |
| 고영완 | 장흥 | 1852년 | 정6간, 측2간 | 전후좌 | 문화재자료 161 | |
| 위봉환 | 장흥 | 1925년경 | 정6간, 측2간 | 전좌 | 전남민속자료 39 | 101.5㎡(30.7) |
| 이규행 | 함평 | 18C초경 | 정6간, 측1간 | 전후좌우 | 문화재자료 150 | 98.5㎡(29.8) |
| 민정기 | 해남 | 1845년 | 정7간, 측1간 | 전후 | 문화재자료 186 | 74.3㎡(22.5) |

*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다. 즉 이 가옥은 방촌마을, 더 나아가 전남지방 조선 중기이후 반가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가옥의 안채는 현재 정면 6간의 'ㅡ'자형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위성렬의 4대 조부인 魏啓文(1865-1950)이 1945년 11월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튼 'ㅁ'형 가옥을 헐고 새로 지은 것이다. 본래의 튼 'ㅁ'형 가옥은 1622년에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즉 300년이 훨씬 넘는 오랜동안

옛 건축연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즉 장자인 東筌(1602-1667)에게 가옥을 남겼는데 그 규모가 사당 3간, 기와집 20간, 대청 5간이었다. 이 내용이 바로 당시 'ㅁ'형 안채를 포함한 종가의 가옥 현황인 셈이다.

1622년에 지은 튼 'ㅁ'형 가옥은 현재의 'ㅡ'형 안채 아래쪽에 있었던 것을 위로('ㅡ'형 안채 자리) 옮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즉 1588년 덕화가 지은 집을 불과 34년만에 옮긴 것이다. 이유는 집을 위로 옮기면 남편들의 벼슬길이 막혀 고향에 내려 올 수 있다는 도사의 말을 듣고 세 부인(정철의 어머니, 처, 며느리)들이 주도하여 옮겼다고 한다.(2006년 11월 위성렬 고증)

익숙했던 전통적인 가옥구조를 새롭게 바꾼 것이다.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一'형으로 바꾼 이유는 튼'ㅁ'형이 어둡고 또한 집의 규모에 비해 방의 수가 적었다고 한다.[5] 실제로 'ㄇ'형에서는 방이 3개인 반면 새로지은 '一'형은 방이 5개이다. 결론적으로 이 종가는 시대의 변화를 기능적으로 기꺼이 수용한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있다면 조선 중·후기 사이에 많은 'ㄇ'형 안채가 전남지방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宗家로서의 'ㄇ'형 안채

'ㄇ'형 안채를 보유한 가옥은 상당수가 宗家로서 자리한 사실에 주목된다. 종가는 조선 후기 동족마을의 문중결속을 다지는 구심점이 되었던 곳으로 상징성이 매우 컸던 곳이다. 따라서 종가는 대개 마을 중앙의 약간 높은 곳에 위풍당당하게 건립됐다.

1600년대에 건립됐던 것으로 여겨지는 무안읍 고절리의 'ㄇ'형 고가는 이 지역 礪山宋氏 종가였다. 지금은 사랑채와 문간채만 남아있고 'ㄇ'형 안채는 2001년 경에 훼철되고 없다. '위성렬 가옥'도 長興魏氏의 종가다. 1500년대 후반 무렵 위씨가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종가를 건립한 것이다. 비록 현재의 '一'형 안채는 본래의 'ㄇ'형을 헐고 새로 지은 것이지만 13대 3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사당 또한 정면 3간, 측면 1간 반의 맞배집으로 종가터가 잡힌 후에 건축된 거의 300여년이 된 건물이다.

함평의 '이건풍 가옥'도 咸平李氏의 종가이며, '정무경 가옥'도 羅州鄭氏의 집성촌에서 제일 오래된 가옥으로 종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의 '녹우당'도 海南尹氏의 종가로서 윤씨일가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곳이다.

5) 장흥위씨 13대손인 魏聖烈(1928년 생) 고증(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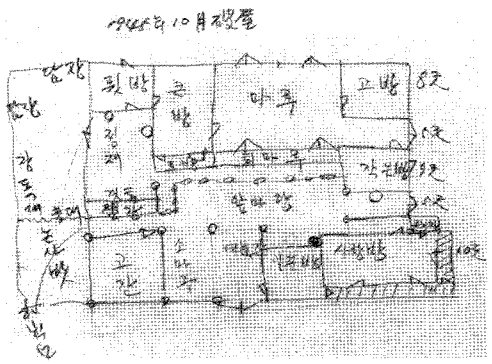
## 3. 'ㄇ'형 안채의 건축적 특성

### 3-1 주변건물과 'ㄇ'형 안채

(1) 튼 '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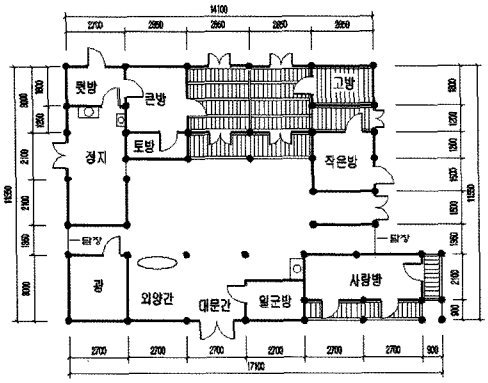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한옥의 형태를 분류할 때 '一'형, 'ㄱ'형, 'ㅁ'형 외에 '튼 ㅁ'형이라고 하는 또다른 유형을 추가한다. 튼 'ㅁ'형은 'ㄇ'앞에 '一'형 건물이 있거나 'ㄱ'형 건물 2채가 서로 맞물려 있어 전체적으로 네모난 중정을 형성한 형식이다.

연구대상 가옥 중 '위성렬 가옥'은 행랑 겸 사랑채, '운조루'[6]는 곡간채, '녹우당'은 사랑채가 각각 전면에 놓여 안마당 개념의 중정이 내부에 형성됐다. 즉 전체적으로 '튼 ㅁ'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위성렬 가옥'은 행랑채가 거의 안채 날개에 맞물려 있어 내부 마당뿐만 아니라 안채도 매우 답답하고 어두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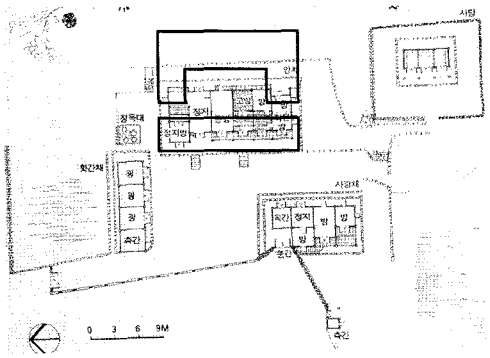


<그림4> 1622년에 지은 위성렬 가옥 개념도
(2002년도 위성렬 작성)

6) 雲鳥樓는 건축주인 유이주(1726-1797)가 직접 家圖를 그려 1776년에 완공을 한 집이다. 경북 태구 태생인 그가 구례 낯선 땅에 이 집을 지은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1771년에 인근의 낙안군수를 역임한 사실도 한가지 일 수도 있다.
운조루는 건물배치나 외부공간구성 등 여러 면에서 전남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집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집이 될 수도 있다. 'ㄇ'형 안채도 사랑채와 곳간채, 그리고 아랫사랑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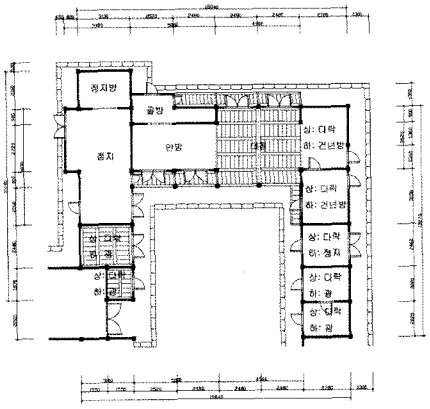



<그림5> 필자가 치수선을 넣어 새로 그린 위성렬 가옥 평면도




<그림6> 현재의 위성렬 가옥 배치도
(굵은 선이 튼 'ㅁ'형 가옥 위치)

<사진2> 운조루 안채




<그림7> 운조루 안채 평면도

2) 단독형

'이군백 가옥', '정무경 가옥', '이경휴 가옥'[7] 등은 'ㄇ'형 안채 단독으로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 작은 헛간채 등 만이 있어 전체 가옥 배치구조에는 영향력이 없다. 보편적으로 다른 가옥보다 대지가 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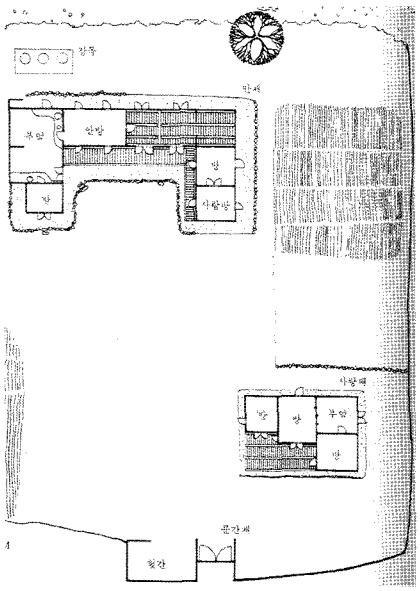
(3) 안채 전면에 사랑채

'ㄇ'형 안채 전면에 '二'형 개념으로 사랑채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형식이 '이금재 가옥', '이용우 가옥', '양동호 가옥', '한정석 가옥' 등에서 보인다. 두 건물 사이는 장방형 공간이 생겨 안마당 개념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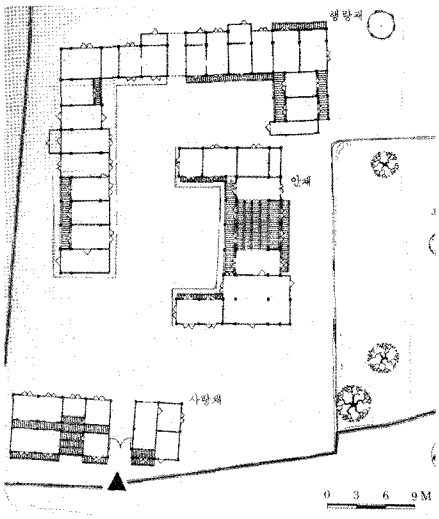
한정석 가옥은 안채 전면과 측면에 'ㄱ'형 건물 2채(행랑채)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정형적이지 못하고 분산적이다.

여산송씨 종가도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나 사랑채가 안채와 거리를 두고 한쪽 면에 위치하고 있다.

7) 이경휴 가옥은 원래 안고랑(죽청2구)에 있던 건물(1655년경 건립 또는 중수)을 광산이씨 이우채(1710-1756)에 의해 1755년(건륭 20, 을해)에 현 위치에 이건되었다. 이곳에서 100년간을 광산이씨가 거주하다가 1854년경에 제주양씨에게 소유건이 넘어가고 다시 112년만인 1966년 광산이씨 이경휴가 매입하였다. 이 가옥은 건축연혁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고 건립년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그림8> 여산송씨 종가 배치도[8]
(1986년 필자실측)



<그림 9> 한정석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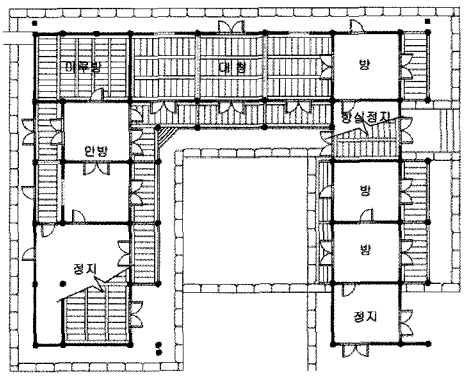
8) 이 가옥은 '⊓'형 안채 중심으로 넓은 평탄한 대지에 건립된 여산송씨 종가다. 안채는 16세기 말경에 지어진 것으로 1986년 조사당시 여러 곳이 심하게 노후되어 있었다. 사랑채는 1940년대 초에 새로 중건한 것이며 문간채는 1980년 경에 지은 것이다. 이 가옥은 조선중기 무렵 영산강 유역의 상류가옥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남지방 주거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 3-2. '⊓'형 안채의 규모

'⊓'형 안채의 규모는 '간' 규모로 보면 몸채부가 거의 비슷하게 5간, 6간, 7간 등으로 고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규모는 표3에서 보듯이 이 지방 '一'형 안채의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측면으로는 1간이 많이 보인다. 퇴간은 가옥에 따라 전·후·좌·우에 별도로 설치됐다.

돌출부는 거의 정면 1간에 측면 1-2간이 대부분이나 사대부 가옥라 할 수 있는 '운조루', '녹우당', '윤두서 가옥' 등 만큼은 돌출부 측면이 4내지 5간으로 매우 길다. 전체로 본다면 몸채부 길이만큼 많이 돌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내부 중정이 강하게 위요되어 있다. 돌출부가 특히 긴 것에 대하여는 2가지로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대부가로서 안채의 많은 공간 수요를 돌출부가 맡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방과 대청을 안쪽 깊숙한 곳에 둠으로서 사대부가 여성들의 공간적 폐쇄성을 나타내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건축면적(평)은 20평대와 30평형대가 대부분이나 50평대도 일부 가옥(윤두서)에서 보인다. 표4에 나타난 11가옥의 평균 면적은 31.87평이다. 한편 표3에 제시한 '一'형 20가옥의 평균 면적은 29.21평으로 '⊓'형보다 2.66평이 작다.




<그림10> 윤두서 가옥 안채 평면도
(2006년 필자 실측)

[표 4] 'ㄇ'형 안채 규모

| 요소 / 가옥명 | 몸채부 (정면 × 측면) | 돌출부 (정면 × 측면) | | 면적(평) | 기타 |
|---|---|---|---|---|---|
| | | | | | |
| 김선기 | 4 × 1 간 | 1 × 1 간 | 1 × 1 간 | 81.4㎡(24.6) | 몸채부 전퇴 |
| 윤조루 | 6 × 1 간 | 1 × 4 간 | 1 × 4 간 | 116.7㎡(35.3) | 몸채부 전·후·좌퇴 |
| 양동호 | 7 × 2 간 | 1 × 1 간 | 1 × 1 간 | 122.9㎡(37.2) | 돌출부 우퇴 |
| 이경휴 | 7 × 2 간 | 1 × 1 간 | 1 × 1 간 | 117.3㎡(35.3) | 몸채부 전·후퇴 |
| 윤두서 | 5 × 1 간 | 1 × 3 간 | 1 × 3 간 | 179.4㎡(54.3) | 몸채부 전퇴<br>좌 돌출부 좌·우퇴<br>우 돌출부 우퇴 |
| 녹우당 | 5 × 1 간 | 2 × 5 간 | 1 × 5 간 | | 몸채부 전·좌·우퇴<br>좌 돌출부 좌·우퇴(일부)<br>우 돌출부 우퇴(일부) |
| 이군백 | 7 × 2 간 | 1 × 4 간 | 1 × 4 간 | | 몸채부 전퇴 |
| 위성렬 | 5 × 1 간 | 1 × 2 간 | 1 × 2 간 | | 몸채부 전퇴 |
| 여산 송씨 종가 | 6 × 1 간 | 1 × 2 간 | 1 × 2 간 | 66.0㎡(20.0) | 몸채부 전퇴<br>좌 돌출부 좌퇴<br>우 돌출부 좌퇴 |
| 이견풍 | 5 × 2 간 | 1 × 1 간 | 1 × 1 간 | 80.6㎡(24.4) | 몸채부 전퇴 |
| 정무경 | 6 × 1 간 | 2 × 1 간 | 1 × 1 간 | 92.0㎡(27.9) | 몸채부 전·후·좌퇴 |
| 정학남 | 5 × 1 간 | 1 × 2 간 | 1 × 1 간 | 80.5㎡(24.4) | 몸채부 전·후·우퇴<br>우 돌출부 우퇴 |
| 한정석 | 7 × 1 간 | 1 × 2 간 | 1 × 2 간 | 109.4㎡(33.1) | 몸채부 전퇴 |
| 이금재 | 5 × 1 간 | 1 × 1 간 | 1 × 1 간 | 111.9㎡(33.9) | 몸채부 전·후·좌·우퇴<br>좌·우 돌출부 좌·우퇴 |
| 이용우 | 5 × 2 간 | 1 × 1 간 | 1 × 1 간 | | 몸채부 전·후·좌·우퇴<br>좌 돌출부 전·좌·우퇴<br>우 돌출부 좌·우퇴 |
| 이동훈 | 7 × 1 간 | 1 × 3 간 | 1 × 3 간 | | 몸채부 전·후퇴<br>좌 돌출부 좌로 2간 늘어남 |
| 현종식 | 6 × 1 간 | 1 × 4 간 | 1 × 4 간 | | 몸채부 전·후퇴 |

<사진3> 윤두서 가옥

### 3-3. 실 구성 및 배치

(1) 실 구성

'ㄇ'형 안채에는 조사 가옥 17채 모두가 거의 비슷하게 침실인 온돌방과 대청, 정지(부엌), 안광, 툇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침실은 안방이 반드시 있고 작은방은 가옥에 따라 2-4개씩 있다. 한편 정지에 딸린 작은방(정지방)과 안방의 부속실 형태로 골방을 둔 가옥도 있다.

대청은 어느 가옥에나 꼭 있고 전면에는 '운조루'와 '이군백 가옥'만 제외하고 창호(띠

살문)를 설치하였다. 창호 설치는 이 지방의 '一'형 안채도 마찬가지인데 이로 인해 내부가 다소 폐쇄적이다.

'ㅁ'형 안채에는 '안광', '고방', '마루방' 등으로 불리는 수장 공간이 17채 가옥 중 12채가 있다.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고 이곳에는 주로 알곡식이 큰 항아리에 담겨져 보관된다. 안채에 이러한 공간이 마련되는 것은 '一'형에서도 보편적으로 보이는 이 지방 가옥구성의 특징이다. 한편 돌출부에 다용도 기능의 광이 설치된 가옥도 있다. (김선기 가옥)

툇마루는 안마당 쪽으로 중앙부에 설치되었고 가옥에 따라서는 양측 돌출부 쪽에도 마루를 둔 가옥도 있다.

(2) 실 배치

평면형(실 배치)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으로 주거 연구의 핵심으로 자리한다. 전남지방 'ㅁ'형 안채의 평면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첫째, 몸채부 전후로 퇴간을 두고 전퇴에는 마루가(툇마루)가 설치된다.

둘째, 특별히 겹집화 하려는 경향은 없다. 그러나 몸채부 양 단부는 작은 실을 꾸미려는 의도로 인해 부분적인 겹집화 현상도 일부 가옥에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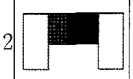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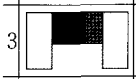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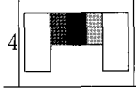
셋째, 'ㅁ'형 핵심부라 할 수 있는 중앙에 역시 안채의 중심인 대청과 안방이 배치된다.

다음은 한옥 평면구성의 Key라 할 수 있는 대청과 안방, 그리고 정지, 안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대청과 안방

대청과 안방은 몸채부 중앙에 거의 자리한다. 대청은 연구대상 17가옥 모두가 중앙부 좌측 내지는 우측에 자리했다. 한편 해남지역에 위치한 '녹우당', '윤두서 가옥', '이군백 가옥'은 몸채 중앙부 3간 모두를 넓게 대청으로 배려했다. 이로 인해 이 3가옥에서는 자연히 측면 내지는 돌출부 쪽에 안방이 자리했다. 중앙부에 대청과 안방을 배치한 것은 이곳이 구조적으로 건물의 중심이 되어 위계상으로도 우위이고 아울러 채광이나 통풍 등도 유리한 곳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5] 'ㅁ'형 안채의 대청과 안방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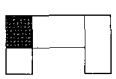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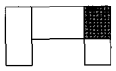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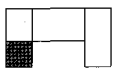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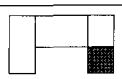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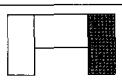
| | 위치 | 가옥명 | 비고 |
|---|---|---|---|
| 1 | | 녹우당, 윤두서, 이군백 | |
| 2 |  | 김선기, 이경휴, 위성렬, 여산송씨 종가, 운조루, 이금재, 이용우, 현종식 | 이금재, 이용우 가옥은 'ㅁ'형 |
| 3 |  | 양동호, 이건풍, 정학남, 정무경 | |
| 4 |  | 이동훈, 한정석 | 한정석 가옥은 안방과 작은방 위치가 바뀜 |

· ■ 대청, ■ 안방, ■ 작은방

② 정지

정지는 몸채 좌·우측 끝 아니면 좌·우측 돌출 부분에 자리했다.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정지가 이곳에 자리한 것은 중앙부에 대청과 안방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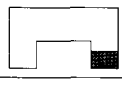
[표 6] 'ㅁ'형 안채의 정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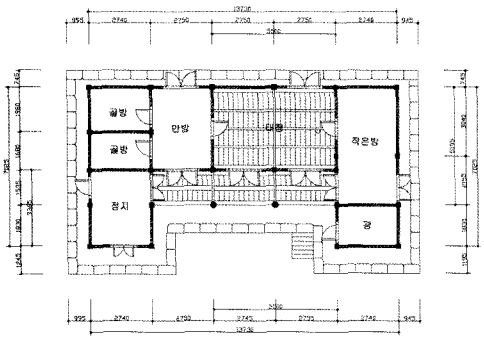
| | 위치 | 가옥명 | 비고 |
|---|---|---|---|
| 1 |  | 이경휴, 여산송씨종가, 운조루, 이금재, 이용우, 이동훈 | |
| 2 |  | 정무경, 한정석 | |
| 3 |  | 김선기, 녹우당, 윤두서, 위성렬 | |
| 4 |  | 양동호, 이군백 | |
| 5 |  | 정학남, 이건풍 | |
| 6 | | 현종식 | |

③ 안광

안광은 반드시 몸채부에 두어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입은 모두가 대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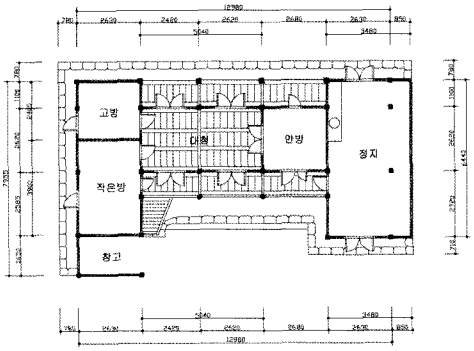
[표 7] 'ㄇ'형 안채의 안광 위치

| | 위치 | 가옥명 | 비고 |
|---|---|---|---|
| 1 | | 이경휴, 이군백, 위성렬, 여산송씨종가, 이동훈 | |
| 2 | | 녹우당, 이건풍, 정학남, 정무경, 이금재 | 이금재 가옥은 '凵'형 |
| 3 | | 운조루 | |
| 4 |  | 현종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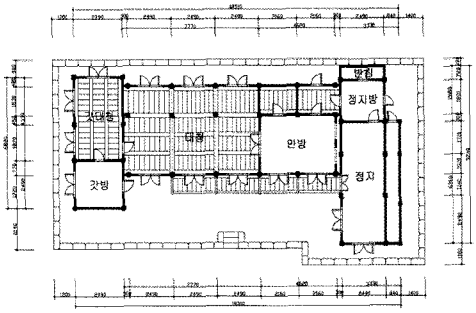



<그림11> 김선기 가옥 안채 평면도
(2006년 필자 실측)

<사진4> 김선기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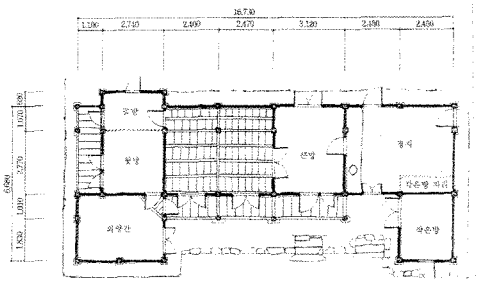

<그림12> 정학남 가옥 안채 평면도
(2006년 필자 실측)




<그림13> 양동호 가옥 안채 평면도

④ 기타

부농이었던 정무경 가옥의 경우는 좌측 돌출부에 외양간이 자리한다. 이러한 예는 다른 지역 가옥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한편 함평지역에서는 다소 규모가 큰 민가에서도 'ㄇ'형 안채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그곳에서도 돌출부에 외양간을 마련하였다.




<그림14> 정무경 가옥 안채 평면도
(1993년 필자 실측)

(3) 전남지방 '一'형 안채의 평면형

전남지방 '一'형 안채는 앞에서 밝혔듯이 시기적으로는 'ㅁ'형보다 상당히 늦고 규모는 몸채부만을 보면 거의 같다. 표3에 제시한 '一'형 안채의 평면구성을 분석해 본 결과는 표8과 같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표 8] 전남지방 '一'형 안채의 평면 유형

| | 유형 | 가옥명 | 비고 |
|---|---|---|---|
| 1 | 정지 안방 대청 작은방 | 박경중, 최석기, 위계환, 위성룡, 전씨 고택, 문형식, 문창집, 이종선, 민정기, 위성탁, 위봉환, 고영완, 이용욱, 임진영, 고재선 | |
| 2 | 정지 안방 대청 작은방 | 이규헌, 박봉기, 홍기응, 나상열, 홍기종, 이규행, 조순탁, 홍기헌 | 조순탁 가옥은 건너방 옆으로 마루방(1간) |
| 3 | 방 정지 안방 대청 방 작은방 | 홍기창, 이식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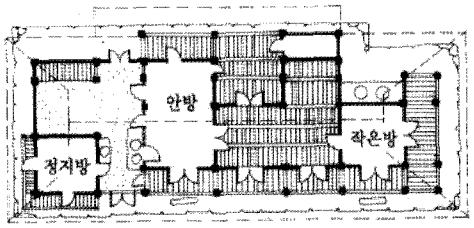
첫째, 'ㅁ'형에서 나타나지 않는 겹집형상이 '一'형에서는 7채 정도 보인다.

둘째, 안방과 대청이 'ㅁ'형에서와 같이 중앙쪽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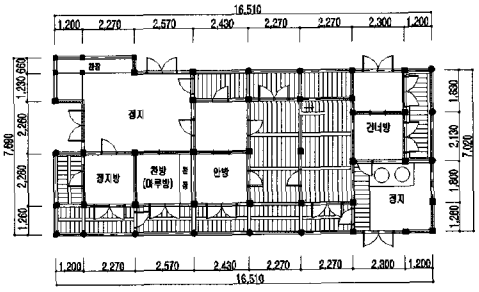
셋째, 정지가 단부에 위치하는 즉, 정지, 안방, 대청, 작은방, 건너방 순으로 이어지는 실구성이 주류를 이룬다. 표8의 3번과 같이 중간에 정지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넷째, 'ㅁ'형보다 각 실이 상당히 분화되어 나타난다. 예로 정지나 작은방 뒤쪽으로 정지방, 고방, 마루방 등이 설치되고(고영환, 위계환, 위성탁, 위봉환, 이종선 등) 대청도 앞뒤로 분리되어 나타난 가옥도 있다(안대청, 바깥대청 - 이종선 가옥). 안방도 같은 크기로 상·하방 등으로 분리되기도 하고(나상열, 박봉기, 고영완 가옥 등) 작은 골방을 두기도 한다(박경중, 홍기종, 최석기 가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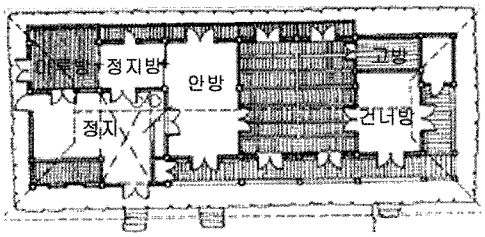
'一'형은 상대적으로 'ㅁ'형보다 공간적으로 드러냄이 강하고 구조적으로도 단순하다. 그렇기에 폐쇄적인 'ㅁ'형 보다 개방적인 '一'형 집이 근대화가 시작되는 19C 후반부터 널리 유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15> 홍기응 가옥 안채 평면도




<그림16> 나상열 가옥 안채 평면도




<그림17> 위성룡 가옥 안채 평면도

## 4. 결론

전남지방의 'ㅁ'형 주거는 그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거 형태다. 몇몇 지표조사 성격의 보고서 정도에 소개 정도로만 있었다. 본 연구는 많은 '一'형 주거 속에서 'ㅁ'형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자리했는가를 살펴본 것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가옥에서 안채는 영역, 기능, 상징성 등에 있어 다른 어느 건물보다 중심에 있다. 따라서 안채의 자리와 형태는 가옥 전체의 유형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17세기 무렵부터 보이기 시작한 전남지방 'ㄇ'형 안채는 '一'형과 크게 대조가 된다. 특히 宗家에서의 발달은 어떤 특별한 차별성을 갖기를 바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구한말 이후 근대화가 무르익는 20세기에 들어 'ㄇ'형 보다 '一'형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건립됐다. 전라남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대부분의 '一'형 한옥이 바로 이 시기 즉, 50여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립됐다.

종가인 'ㄇ'형을 헐고 '一'형으로 새로 짓는 큰 변화도 일어났다.(위성렬 가옥) 종가의 다른 법도라면 그대로 'ㄇ'형을 짓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一'형으로 바꿔 지은 까닭은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근대'라는 변화의 요구, 즉 개방과 편리성을 건물로 수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인근의 대다수 가옥들이 보기 좋고 위엄 있는 '一'형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ㄇ'형 한옥의 맥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ㄇ'형 한옥은 형태와 공간에서 표출되는 의미로 본다면 '一'형 보다 폐쇄적이고 감춤이 많다. 구조적으로도 더 복잡하고 평면상으로도 실 배치에 한계가 있다. 즉 넓고 밝으며 덜 막힌 곳은 몸채부 중앙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ㄇ'형의 평면구성은 몸채부 중앙에 가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청과 안방을 두고 양 돌출부에는 적절하게 작은방과 정지 등을 두었다. 한편 사대부가로 알려진 운조루, 녹우당, 윤두서 가옥 등은 돌출부분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 안마당의 위요가 다른 가옥보다 강하다.

조선중기 이후 폭넓게 전남지방에 'ㄇ'형이 분포하는 것은 조선후기 이후 '一'형이 지역에 관계없이 널리 건립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즉 당시 사대부내지 향토 지주들의 건축적 교감으로 여겨진다.

몇 채 남지 않은 'ㄇ'형 안채는 지난 400여년간의 전남지방 주거사를 밝혀 준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문헌>


1. 배종무 외, 무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학술총서 제2책, 1986
2. 전봉희, 전남 보성지역의 ㄴ자형 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8호, 1988년
3. 최성락 외, 함평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학술총서 제30책, 1993
4. 이해준 외, 장흥 방촌, 장흥군, 1994
5. 박명현·천득염, 조선후기 중상류주거 배치 형태에 관한 연구-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3권 2호, 2003
6. 천득염 외, 남도전통주거론, 경인문화사, 2004

# A Study on the 'ㄇ' shape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in Jeonnam Area

Kim, Ji-Min
(Prof. Mokpo University)

## Abstract

'ㄇ'shape of Jeonnam Area has not been well-known so far. This study is about when, how and on what type the 'ㄇ'shape had settled among many '一' shape houses.

The Anchae of Jeonnam Area which appeared 17C. contrasts with '一' shape. Especially, the head family's house might have been expected to develop with special difference.

'一' shape had been built much more than the 'ㄇ'shape around 20C when modernization had been ripen. It was big event that 'ㄇ'shape, the head family's house, had been pulled down and then '一' shape had been newly built. (Ui Seong-ryeol house) The reason why '一' shape had been built instead of 'ㄇ'shape might be that people accepted the change of 'modernization', that is to say, people accepted convenience and opening.

The plan of 'ㄇ'shape consists of Daecheong and Anbang at the center of Momche, and Jageunbang and Jangji at both sides. In the 'ㄇ'shape, the center of Momche is wide dand light unlike '一' shape. Unjoru, Nogudang, Yundoseo house have long wing and have more encircling Anmadang than other houses, which are well known for a house for a man of noble birth.

Keywords : Jeonnam Area, 'ㄇ'shape of Korean traditional house, The late chosun Dynasty.